

신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빛 320억원

8월 기준 대위변제액 광주신보 181억·전남신보139억원 코로나19로 불황 장기화 ... 연말 연체율 크게 높아질 듯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역신보보증재단(신보)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3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신보 보증액은 1조5470억원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보증액의 2배 수준이었다.

10일 광주신보·전남신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광주 181억원·전남 139억원 등 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보증액 489억원의 65.4% 정도 수준이다.

지역신보들은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위변제 건수는 광주 1318건·전남 955건 등 2273건으로, 1건당 변제액은 1408만원인 셈이다.

최근 4년(2016~2019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59.3%(182억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16년 307억원(광주 186억·전남 121억) ▲2017년 412억원(광주 206억·전남 206억) ▲2018년 463억원

(광주 281억·전남 182억) ▲2019년 489억원(광주 261억·전남 228억) 등 매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규 보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연말 대위변제율(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등을 시행해 지역신보들은 연말이 되기도 전에 지난해 보증실적의 2배를 넘겼다.

8월 말까지 지역신보 보증금액은 광주 7268억원·전남 8202억원 등 1조547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보증액(7858억)의 2배에 달한다.

광주 2만7075명·전남 3만1047명 등 6만명에 달하는 지역민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대출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7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대출금이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전자금으로 쓰인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들이 특별보증으로 빛을 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들

■광주·전남신보 대위변제 추이 (단위:건·억원)

연도	광주		전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1632	186	913	121	307	2545
2017	1546	206	1533	206	412	3079
2018	2066	281	1319	182	463	3385
2019	2005	261	1701	228	489	3706
20.8	1318	181	955	139	320	2273

*대위변제:보증한 소상공인 대신 대출금 상환 (자료:광주신보·전남신보)

이 만기 안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체 등 보증사고 건수가 반영된 대위변제율은 8월 말 기준 광주 0.99%·전남 1.44%로, 지난 연말 수준(광주 2.73%·전남 2.31%)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올해 들어 신규 보증공급액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향후 대위변제율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유래 없는 경기 불황으로 보증실적은 역대급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보들은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인 운용배수는 9월 초 현재 광주신보 8.3배, 전

남신보 8배 안팎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역신보들의 운용배수는 11.8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운용배수가 10배라는 것은 기본재산이 1000억원인 신보가 1조원을 보증한 경우를 말한다.

운용배수가 15배를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 보증업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신보는 기본 재산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측정하는 운용배수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수요는 여전히 들끓으면서 지역신보에 대한 지속적인 출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6개 지역신보에 이를 나눠 출원할 계획을 발표했다지만, 이를 지원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출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정부 출연금의 5배를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 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러 정부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150억원 안팎 규모 출연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아직 신규 출원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6.48 (+20.67) 금리(국고채 3년) 0.915 (0.000)

↑ 코스닥 884.30 (+14.83) ↓ 환율(USD) 1184.90 (-4.20)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광주점·이마트 등 협력업체 납품대금 추석 사흘 전 조기 지급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들이 추석 사흘 전인 오는 28일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12일 가량 앞당긴 오는 28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통상 매달 20일까지 영업한 대금을 다음 달 10일째 지급해왔다. 선지급 대상은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다. 광주신세계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주까지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세계그룹은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업체에 1900억원 규모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마트는 300여개 협력업체에 1300억원, 신세계백화점은 1600여개 협력업체에 5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150여개 협력업체에 12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달 29일 정산분을 나흘 앞선 25일에 지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포함한 롯데백화점도 28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한다.

백화점과 롯데e커머스,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35개사 롯데그룹의 조기 지급 대금은 6000억원 규모다. 약 1만3000개 중소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양파는 지난해만큼 ... 마늘은 줄여 주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 적정 재배 수급 안정 회의

올해 전남지역 재배면적은 양파 5743ha, 마늘 5326ha로 지난해보다 각각 32%, 8% 감소했다.

양파의 경우 조생·중만생 모두 가격이 적절했던 반면 마늘은 면적감소에도 평년 대비 생산량이 5000t 늘어(2020년산 7만)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전남도와 적정면적 재배를 위한 산지 홍보 및 지도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 업무협약에 이어 고흥, 해남 등 전남 주산지 시군을 순회하며 내년 양파·마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한 산지 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9월 전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년 재배 의향면적은 양파가 1만7838ha, 마늘이 2만4181ha로 전년 대비 각각 1%, 5%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천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라간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려고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렸다.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4일 현재 6379억원(4월 기준)만 집행된 상태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연합뉴스



‘곡성 백세미’의 4년 연속 완판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석곡농협은 지난 9일 곡성군 석곡면 ‘백세미 방앗간’에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곡성 백세미’의 4년 연속 완판 기념식을 열었다. 곡성 백세미는 올해 생산량 1000여 t을 완판했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